

서로 뜯어먹고 사는 한국사람

경영대학 경영학과 명예교수 최 종 태

1. 서로 뜯어먹고 사는 한국사람

수년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한 기업가가 자기 회사의 고객인 미국의 한 바이어를 한국으로 초청했다. 초청된 미국의 바이어가 서울에서의 10일간 체류를 마치고 떠나는 날 공항으로 배웅 나온 자기를 초청해 준 한국 기업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김 사장! 내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하나의 불가사이를 발견했소이다. 대한민국은 부존자원이 대단히 빈약한 국가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떻게 먹고 사는지 정말 나에게서는 하나의 커다란 수수께끼요. 살아가는 무슨 비결이라도 있으면 말 좀 해주시오”라고 했다.

이때 질문을 받은 한국 기업가는 대답하기를 “아 그것 말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한국사람은 서로 뜯어먹고 삽니다”라고 웃으면서 농담하였다고 한다. “이 일화를 교수님은 이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나는 한동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답변이 이론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 동안 우리나라 기업 경쟁의 원동력을 생산요소별로 볼 때 노동, 자본, 기술, 토지 중 노동이 가장 큰 요소였음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자본에 있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자본 상품의 거래 가격인 이자율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이자율이 경쟁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 기술과 토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일한 경쟁우위 요소인 노동의 경쟁력을 통하여 성장하여 왔다. 환언하면 그동안 노동의 경쟁력인 인건비를 뜯어먹고 산 셈이 되기 때문에 “서로 뜯어먹고 산다”는 답변도 일리있는 응답이라고 볼 수 있다.

생물의 생태계에는 4가지의 존재 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서로 뜯어먹으면서, 즉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경우로서 이를 상생(相生) 관계라 한다. 둘째,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입지 않는 경우이며, 이를 편생(片生) 관계라 한다. 셋째,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한쪽은 이득을 보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경우이고, 이를 기생(寄生) 관계라 한다. 마지막으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가 손해보는 경우로서 이를 상생의 반대인 상극(相剋) 관계라 한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저임금 고도성장하에 노동의 경쟁력을 통하여 상생 혹은 적어도 편생 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임금 저성장의 환경 변화와 더불어 우리는 상생 관계에서 상극

관계로 변하기 시작하여 공존공생(共存共生)이 아닌 공도공멸(共到共滅) 관계로 변할 위기에 놓여 있다.

노동 요소에 있어 서로 뜯어 먹으면서도 서로를 모두 살찌우기 위해서는 성과를 도출시킬 수 있는 능력있는 경쟁력을 갖춘 자산적인 인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인도여행

지난 2월에 나는 기회가 되어 인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 갠지스 강과 타지마할을 비롯해서 명소를 답사하고 자아푸르에 도착하였을 때 나는 불의의 변을 당하였다. 그때가 정확히 2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이었다. 갑자기 우리 일행이 타고 가던 합승차 창 밖에서 돌이 날아와 나의 왼쪽 턱을 강타하였다. 나는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게 되었다. 차 안은 부서진 유리 조각으로 난장판을 이루었다. 순간 나는 바로 그날 오전 9시경 벨기에 관광객 부부가 차에 치어 남편은 즉사하고, 부인은 신음하는 장면을 본 것이 머리에 떠올라 대단히 불길한 마음을 감출길 없었다.

나는 상처난 턱을 감싸고 안내를 받아서 자아푸르에 있는 Santokba 종합병원을 찾았다. 자아푸르는 인도 북부의 델리, 아그라와 함께 삼각관계를 이루는 인구 약 1,300만이나 되는 큰 도시이다. 큰 종합병원이지만 MRI가 없어서 CT 촬영부터 하고 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진단을 받았다. 진단 결과는 다행히 가장 강한 턱뼈에 돌을 맞았기 때문에 뇌와 신경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조금만 비켜서 맞았더라도 큰 불상사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불행 중 천만 다행”이라고 위로하였다.

숙소인 호텔로 돌아와 의사 처방에 따라 아픈 상처에 얼음 찜질하는 도중 인도인에 대한 증오심이 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순간 갑자기 6·25 동란 때 의료지원단으로 참전한 인도군의 모습과 그들에게 매달려 먹을 것을 달라고 애걸하였던 우리들의 일들이 나의 머리를 스쳐갔다. 당시 굶주림에 허덕이던 우리들이 인도군에게도 손을 내밀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애걸하였던 사실은 지금 인도의 길거리에서 가는 곳마다 우리를 보고 구걸하는 장면과 다름이 없었던 것이었다.

만약 이들이 싸워주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 자본주의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지도 모르는 일이라 여겨져 6·25 참전국으로서 인도에 대한 고마움이 나의 마음 한가운데 떠올라 이들에 대한 증오심이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6·25 참전국에 대한 고마움은 지난해 8월 아프리카 여행에서도 느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공과 에티오피아 2개국이나 참전하여 용감히 싸워주었다. 당시 남아공은 물론 에티오피아도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로서 우리나라에서 보여준 그들의 당당한 모습과 위용은

지금도 있을 수 없다.

비록 오늘날 에티오피아나 인도가 최빈곤국가의 나라들로 지목받고 있지만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이들이 우리나라보다 소득이 높은 나라로 자리매김을 하여 왔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우리의 이웃인 동남아 여러 나라들도, 이를테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도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우리보다 잘 살았지 않았던가. 더욱이 오늘날 우리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북한도 1972년 전까지 GNP가 우리보다 앞서 있지 않았던가.

그러면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선진산업국들이 수백 년 이상 걸려서 달성한 산업화를 불과 지난 40여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이룩한 경쟁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이 우리 인적 자원의 경쟁력이라 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겠다.

그러나 인적 자원은 경영상으로 볼 때 항상 자산인 동시에 부채로 등장된다. 기업이 유능한 자를 확보하고 있을 때는 그 기업의 자산이 되겠지만, 무능한 구성원을 안고 있을 때는 부채가 되는 것이다. 이는 국민경제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이다. 한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도 되지만 동시에 저해 요인으로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3. 산업사회 지각 변동과 인적 자원 개발

생각컨대 지난 40여 년 동안 급격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60달러대의 1인당 국민소득을 오늘날 2만 달러대에 이르게 된 이면에는 우리 기업들이 저임금 고도성장형의 경제적 환경을 장기간 누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면서, 특히 1987년의 증폭된 노사분규와 산업민주화운동은 급격한 임금 상승과 더불어 저임금·고도성장시대의 막을 내리게 하였다. 따라서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 요청과 함께 우리가 당면한 경제적 위기는 단순한 단기적인 외환위기나, 외부 힘의 작용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의 우리 인적 자원의 경쟁력 약화와 그에 따른 격변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의 내생적인 위기의 결과라는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욱이 이러한 위기상황이 오늘날 산업사회의 지각 변동과 더불어 심하게 불어닥쳐 오고 있음을 우리는 정확히 지각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적극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다시 빈곤국으로 몰락할 지 모른다.

실로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경제기술 및 사회의 지각 변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급속히 일어나고 있다. 즉 산업시대에서 지식시대로, 지식시대는 다시 창의시대로 계속 급격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지각 변동을 야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서는 우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세계화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디지털화를 손꼽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혁명은 기술사회와 지식사회의 지각 변동을 일으켜 창의기반 시대로 옮겨 가도록 하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급격한 지형 변화에 따른 자산적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적 선택에 국가 경쟁력의 사활이 걸려 있다 볼 수 있다. 이러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서울대학교에 부여된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책무는 그 어느때보다도 막중하다고 여겨진다.